

Vst을까/르까 봐(서)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one is worried or afraid because the prior action or state is likely to happen. It is equivalent to the English "One is afraid that...so...". It gives cause to the resulting action or inaction. It attached to verb stems.

- 약속에 늦을까 봐 택시를 탔어요.
- 시험이 어려울까 봐서 걱정이예요.
- 비가 올까 봐 우산을 챙겼어요.

※ 'Vst을까/르까 봐(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_____ 밤에 일찍 자요. (늦잠을 자다)
2. 저는 늦으면 _____ 미리 예매했어요. (자리가 없다)
3. _____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아이가 다치다)
4. 혹시 _____ 걱정이예요. (시험에서 떨어지다)
5. 민영 씨는 _____ 밥을 안 먹는대요. (똥똥해지다)

※ 'Vst을까/르까 봐(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 어디 가요?
나 : 친구가 _____ 마중 나가려고요.
2. 가 : 왜 커피를 안 마셔요?
나 : 이따가 밤에 _____.
3. 가 : 옷을 많이 입고 왔네요.
나 : _____ 많이 입고 왔는데 별로 안 춥네요.
4. 가 : 무슨 일 있어요?
나 : 교실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_____ 걱정이예요.
5. 가 : 왜 음식을 버려요?
나 : 산 지 한 달도 넘었거든요. _____.
6. 가 : 왜 택시를 타고 왔어요?
나 : _____.
7. 가 : 김밥을 정말 많이 싸 왔네요.
나 : 네, 운동한 다음에 _____ 많이 싸 왔어요. 좀 드세요.
8. 가 : 구두가 참 높네요.
나 : 네, 그래서 _____ 운동화도 챙겨 왔어요.
9. 가 :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나 :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고 계신데 _____.



답

※ 'Vst을까/르까 봐(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늦잠을 잘까 봐
2. 자리가 없을까 봐
3. 아이가 다칠까 봐
4. 시험에서 떨어질까 봐서
5. 똥똥해질까 봐

※ 'Vst을까/르까 봐(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길을 잃어버릴까 봐
2. 잠이 안 올까 봐서요.
3. 추을까 봐
4. 누가 가져갔을까 봐
5. 상했을까 봐요.
6. 늦을까 봐요.
7. 배고플까 봐
8. 발바닥이 아플까 봐
9.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